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오덕성 우송대학교 총장

호모 헨드레드(Homo Hundred)시대라 불릴 만큼 우리 사회는 100세까지 사는 것이 당연시 되었고 의학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는 '알파 에이지' 시대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기대수명은 140세까지 바라보게 되었다. 실리콘밸리 등 세계 여러 곳에서 생명 연장을 위한 연구가 붐을 이루고 구글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Sergey Brin)은 노화 연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60세 무렵 정년퇴직을 하고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비단 나와 내 주변의 고민만은 아닐 것이다. 인생 2라운드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막연한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떠오른다.

슈바이처 박사는 30세에 이미 유럽 지역에서 존경받는 신학과 교수였으며 어려서부터 오르간(organ) 연주자로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던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확고한 인생 계획 즉, "30세까지는 내가 좋아하는 학문과 음악을 하고 그 이후에는 가

행복한 '인생 2라운드'를 위한 준비

난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자."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30세라는 낮은 나이에 의학공부를 시작하고 8년 후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장래가 보장되는 프랑스가 아닌 의료기술이 취약한 당시 프랑스령이었던 아프리카의 람바레네(Lambarene)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성공과 명성을 뒤로한 채 52년이라는 긴 시간을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

'남을 위해 봉사하는 이타적인 삶'이라는 철학을 몸소 실천하며 살았던 슈바이처가 한 중요한 말이 있다. "내 안에 빛(꿈, 가치관)이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빛나는 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내부에서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남들이 정해 놓은 가치, 나만 돋보이고 싶은 가치는 내 안의 빛이 아니다. 안으로부터 저절로 빛나는 나만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조용히 내면을 성찰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여러 직업에서의 성공, 교수에서 의사의로의 변신 등 슈바이처 박사의 특별함은 평범한 우리와는 다른 삶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슈바이처 박사의 특별함은 물리적 능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를 알아보고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었던 용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슈바이처 박사는 인생을 멀리 내다볼 줄 아는 눈이 있었고 명확한 비전이 있었으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젊은 시절에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가장 필요한 분야가 의

인 것을 알고 의학 공부를 한 것이다. 우리도 성취와 물질만을 위해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던 여정을 잠시 멈추고 더 높은 차원에서 인생과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하다. 자리아타(自利利他), 나에게도 남에게도 좋은 무엇인가는 나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나만을 위해서 혹은 타인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아닌 제3의 길이 분명 보일 것이라 믿는다.

또, 슈바이처 박사는 인생 2막을 열어줄 공부를 시작했다. 8년간의 의학공부와 의사로서의 준비과정이 있었다. 밑그림을 채색하기 위해 물감과 붓이 필요하듯이, 우리도 인생 2라운드를 잘 살기 위해 공부와 필요한 것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혜가 통합되어 새로운 세상의 문이 열리며 절망 대신 희망이 우울 대신 환희가 내면을 채우며 성취감과 행복감이 찾아올 것이다. "성공은 행복의 열쇠가 아니다, 행복이 성공의 열쇠이다."라는 슈바이처 박사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이 어려서부터 꿈꿨고, 하고자 하는 일을 하다가 보면 내가 행복해지고 자연스럽게 내면의 빛이 더 환하게 빛나게 될 것이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활력 있게 긴 노후를 맞는 것이 화두가 된 시대이다. 오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의료기술이지만 활력이 있는 '행복한 인생 2라운드'의 열쇠는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명은 재천이지만 삶을 어떤 가치로 꾸러갈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자.

종교칼럼

믿음 선택의 지혜



김원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원불교에서 4월은 매우 중요한 달이다.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大覺)을 이룬 1916년 4월 28일을 실질적으로 개교한 날로 보아 매년 경축하는 원불교의 최대 경축일이다. 종교에서는 믿음을 강조한다. 믿음이라 함은 만사를 이루려할 때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믿음은 현실 전개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고 어마어마한 비중으로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세계에서도 이 믿음은 결심과 회의와 앓과 분별과 정성 등 모든 것의 모체가 된다.

우리는 벼를 심어 놓으면 가을에 수확이 보장된다는 믿음이 있기에 눈을 장만하여 벼를 심으려는 결심을 하게 된다. 결심이 굳어진 후에는 이 일을 추진하는 데 문제는 무엇이고 그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회의(懷疑)를 한다. 어떤 의심이 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여 해결책을 알아내고, 알아

낸 후에는 농사짓는 일에 분별과 정성을 기울이게 된다. 이와 같이 모든 일마다 이 믿음과 결심과 회의와 앓과 분별과 정성 등 내면 정신세계의 요소가 모든 현실 전개의 핵심 요소요, 이러한 핵심 요소의 중심에는 바로 믿음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현실은 믿는 대로 전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믿음 자체에 부실한 요소가 있다면 거기에 그치지 않고 바로 현실의 전개 과정에서 작용하여 나타난다. 이는 마치 씨앗 속에 부실한 요소가 있어서 그 부실한 씨앗이 반드시 발아, 성장, 발화, 결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농부는 무엇보다도 씨앗 선택을 가장 신중하게 한다. 부실한 씨앗을 다 걸러내고 완실한 씨앗만을 골라 사용한다. 또 우수한 품질의 씨앗을 선택한다. 이렇게 씨앗 선택을 잘 해 놓으면 그 농사의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이러한 모든 원리를 깨닫는다면 인생사는 믿음 선택의 문제이므로 믿음 선택이 가장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에 절로 수긍이 갈 것이다.

믿음 선택은 결코 어리석은 마음으로 할 수 없고 경솔한 마음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잘못된 믿음을 선택할 바에야 차라리 '믿음 선택'을 유보하고 예의주시하다가 확실한 근거가 떠오를 때 믿음을 갖는 편이 훨씬 낫다. 옛 경서에 "전후좌우가 다 그러다 해도 믿지 말고, 조정(朝政)이다 그러다 해도 믿지 말고, 천하가

다 그러다 하면 직접 확인해 보고, 그래도 그림이 발견되면 그때 버리라", "전후좌우가 옳다 하고, 조정이 다 옳다 하고, 천하가 다 옳다 한 연후에, 직접 보아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대응해 쓰라" 하였다. 이것은 믿음에 대한 경솔한 태도를 경계해 준 말씀이요, 그만큼 믿음 선택에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일이 있다. 앞을 신경 쓰다 보면 뒤에서 실수가 나오고, 뒤를 신경 쓰다 보면 앞에서 실수가 나오고, 왼쪽을 신경 쓰다 보면 오른쪽에서 실수가 나오고, 오른쪽을 신경 쓰다 보면 왼쪽에서 실수가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 이유는 믿음이 신경 쓰는 쪽으로만 기울게 되면 그 반대편에 믿음의 사각지대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바로 거기가 사고 발생의 온상이 된다. 따라서 점검하고 확인하지 않는 믿음은 부실한 믿음이요, 여기가 문제와 사고 발생의 토양이다.

그러므로 완결 무결한 믿음 선택을 위해서는 두루 살피고 또 살피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 더 이상의 의의 여지가 없을 때까지 믿음 선택을 미뤄야 한다. 그것이 실수를 줄이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두루 살피고 또 살피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때 믿음을 주어도 결코 늦지 않다. 믿음의 선택은 가장 신중하고 가장 지혜롭게 해야 한다.

인큐베이터를 꿈꾸는 문화기획자의 제언



정두용 (사)청년문화허브 감독

배웠지,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도 기획에 대해서는 전혀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간단한 공연을 할 때도 기획사에 돈 주고 맡기기로 했거든요. 교수님들도 그렇게 하시고요."

첫 번째 한계는 기존 양성과정들이 문화예술이론, 성공사례 중심의 특강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과정을 마친 후에도 실제 필요한 문화기획 실무를 전혀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필자도 마찬가지였다. 양성과정을 통해 멋진 문화기획 사례들을 접하며 "와 나도 저런 기획을 하고 싶다" 하는 꿈은 꿀 수 있었지만,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는 전혀 배울 수 없었다. 실제로 문화사업을 하기 위해 회사는 어떻게 설립해야 하는지, 기획서를 어떻게 써서 어디에 제안해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홍보는 어떻게 하고 행정과 예산 집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한 일 투성이었다.

"양성만 하면 뭐하나요? 교육 끝나고 나서 우리도 A/S 해주면 좋겠어요. 지속적으로 공급한 거 물어볼 수도 있고 정보, 사람, 일자리, 일거리를 연결해주는 비밀 언덕이 있으면 좋겠어요. 막상 배운 걸 활용해서 뭐가 하려고 해도 함께 할 동료도 없고, 모델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시작할 엄두가 잘 안나요."

두 번째 한계는 양성과정을 수료한 이후에 배운 걸 활용해 새로운 일을 벌일 수 있는 인프라 즉 비빌 언덕, 기회, 동료, 공간 등이 있는 지속적 성장 플랫폼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기존 양성과정에서는 사업기간 동안 교육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 진행하고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모든 과정이 끝나버린다는 점이다.

필자는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문화전문인력 양성과정 '호랭이스쿨'을 2021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데 '실전형 문화기획학교'라는 정체성과 대안대학이라는 비전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본인의 프로젝트 실습 과정과 연계해 실제 문화기획의 시작부터 끝까지 경험하며 현장에서 바로 일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아이러니하게 기존 문화전문인력 양성과정에서 가장 소홀하게 다루는 행정과 회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장 문화활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무척 많은데 품의서, 지출결의서, 공문, 비교견적서 등 행정문서에 익숙해지고 영수증도 직접 붙여보며 회계를 경험하도록 해본다.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대안대학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전문인력 양성과정은 교육만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 관점에서 접근하면 실제적인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 대학을 생각해보면 명확하다. 대학이 단순히 수업 들으러 가는 곳인가? 그곳에서 동기, 선배 등 동료를 만나고, 뜻이 맞는 사람들과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강의실 외에도 공간 등 여러 인프라가 제공된다. 전문 문화기획자는 단순 교육 프로그램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비빌 언덕, 기회, 동료, 공간이 제공되는 인큐베이터에서 성장할 수 있다.

현재 광주가 문화중심도시가 되는 데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 시설(하드웨어)도 사업(소프트웨어)도 아닌 사람(휴먼웨어)이다.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라면 그 어느 지역보다 탄탄한 문화전문인력 양성과정들이 다양하게 펼쳐졌으면 한다.

社說

광주시 '협상 행정', 현안사업 해결 등 일석이조

강기정 광주시장의 '협상 행정'이 현안사업 해결과 막대한 공공기여금 확보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공개·투명·신속'이란 3대 원칙을 바탕으로 광주시의 굵직한 현안 사업을 해결하고 이 과정에서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지역발전기금 형식의 공공기여금까지 챙기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강 시장은 취임 이후 일찌감치 광주시 현안 사업 추진 원칙으로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논란을 줄인 뒤 통과되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른바 공개·투명·신속 3대 원칙인데 주변에선 이를 두고 '시민 중심 협상 행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강 시장의 협상 행정은 복합쇼핑몰 3중 세트와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빛을 발했다. 복합쇼핑몰 3중 세트의 하나인 전방·일신방직 내 '더현대 광주' 사업에선 공공기여금으로 얼마를 기부채납 받느냐가 쟁점이었는데 개발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분의 55%인 5899억원을 받아냈다. 이 사업의 경우 기부채납액

을 토지 가치 상승분의 40~60% 내에서 받을 수 있는데 사업자측과의 줄다리기에 끝까지 광주시에 유리한 조건으로 이끌어냈다. 전일 시장때 시작한 중앙공원 1지구 사업에서도 후분양을 선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3대 원칙을 내세워 사업자에게 8680억원의 공공기여금을 받아냈다. 당초 사업자가 내기로 한 것보다 1371억원 많은 것으로 7년을 끈 사업을 마무리지었다.

강 시장의 협상 행정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것은 평가할만하다. 예상보다 많은 공공기여금을 받아낸 것은 사업자 입장에서 보자면 돈을 더 내더라도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해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 일단 결정하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은 광주시민이나 사업자 모두에게 '윈-윈'이다. 다만 한가지 경계해야 될 점은 3대 원칙이 요식행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과정의 형식만 갖추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하길 바란다.

고무줄 선거법 적용에 지자체 SNS 홍보 속얕이

선거관리위원회의 SNS 홍보에 대한 선거법 적용 기준이 모호해 지자체들이 '속얕이'를 하고 있다. 광주·전남 지자체 나 의회가 타 지자체의 홍보 동영상, 쇼츠(Shorts·짧은 동영상)를 참고해 영상을 제작했다가 선거위의 뉘는 제재에 중단하는 일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최근 제작한 '띄어쓰기 챌린지' 동영상이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영상을 내리고 추가 제작도 중단했다. 도의회는 지난 1월 중순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친근한 의회 이미지 구축을 위해 1분 정도의 쇼츠 영상을 제작했다.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뱀'의 '띄어쓰기 챌린지' 영상을 제작하면서 의원들을 출연시켜 도의회와 의원들을 소개한 것이다. 이 영상은 '너무 심했잖아(→너 무심했잖아)'라는 식으로 띄어쓰기를 바꾸면 미묘하게 달라지는 상황 등을 보여

주는 것으로 20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도의회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SNS 콘텐츠 추가 영상 제작을 앞두고 전남도선관위에 '현역 의원 출연에 대한 선거법 저촉 여부'를 문의했는데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챌린지 영상이라고 해도 영상 활동 범위를 벗어난 지방의회 의원 홍보 영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선거위의 제재기준이 모든 지자체에 동일하지 않다는 데 있다. 전남도의회와 달리 자치단체장 등이 출연한 영암군, 충북도의회 등 유사한 사례의 영상은 버젓이 SNS에 게시돼 있다. 물론 선거법을 위반한 SNS 홍보 행위는 금지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저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선거위에 따라 달라 혼란을 초래한 다면 시장되어야 한다. 또한 SNS 홍보가 대세인 만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선거법 기준을 세밀하게 적용해 볼 필요도 있다.

無等鼓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가 시대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여당은 "586 청산이 시대정신"이라 외치더니 다시 "이조심판"을 주장하고, 야당은 "무지·무능·무도한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세계화, IT시대, 참여민주주의, 경제민주화 등을 앞세워 "시대정신에 따라 투표해 달라"고 호소해 왔다.

시대정신은 한 시대의 사회 일반에 널리 퍼져 그 시대를 지배하고 특징짓는 정신을 말한다. 독일어 Zeitgeist(자이트가이스트)에서 유래된 용어 로 철학자 헤겔이 처음 사용한 개념이다. 헤겔은 인간의 '정신(精神)'을 절대적인 존재이자 모든 것의 근원으로 보았다. 인류 역사에는 한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절대적인 정신이 있고 그것이 바로 시대정신이라는 것이다. 헤겔이 말하는 시대정신은 일반적으로 경제 불황에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케인즈주의나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신자유주의처럼 수 십 년에 걸쳐 세계를 뒤흔든 거대 담론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당면한 현안에 따라 작

은 의미로 시대정신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현재 한국 정치의 시대정신은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라 할 수 있다.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시절부터 '3대 위기론'을 통해 주장한 내용이다. DJ의 통틀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효하다. 최근 스웨덴의 민주주의의다양성연구소는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라고 진단했다. 민생의 위기는 더 심각하다. 사과 한 개에 1만 원 시대, '백설공주'의 마녀도 두 손 들었다는 '금(鎊) 사과'와 모두를 절망에 빠뜨린 '대과 대란' 등 국민의 삶은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 또한 지구촌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한반도는 여전히 긴장 상태다.

오늘부터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흔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투표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고 한다. 이번 총선은 여야 모두 '심판'을 내세워 선택이 아닌 응징의 선거라 할 수 있다. 여야가 '이조심판'과 '정권심판'으로 규정되는 총선의 시대정신은 어떻게 나타날까. 다가오는 10일 황혼녘이 되면 그 실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유재만 편집장@1국장 jkyou@

Table with 3 columns: Office/Department, Name, and Contact Info. Includes details for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